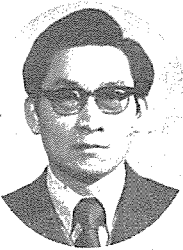


# 제 1 회

## 技術振興擴大會議를 보고



趙完圭

(서울大教授·科總副會長)

第2의 跳躍을 다짐하며 새로 出帆한 第5共和國은 우리의 生存이 科學의 振興과 技術의 革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지난 1월 29일 大統領 주재로 첫번째 技術振興擴大會議를 가진바 있다. 이미 成長의 장벽을 인식하게 된 時點에서 적절한 행사였고, 또한 政府의 意志를 볼 수 있어서 펴 고무적이지 아닐 수 없다. 듣자하니 앞으로 分期마다 擴大會議를 갖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한번 그 會議의 意義를 다져보고 그에 따른 所見을 밝혀보고자 한다.

1960년대 후반을 起點으로 하여 우리는 後進國에서 開發途上國으로 浮上할 기틀을 다져놓게 되었다. 그간 10여년 奇蹟的인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는 동안 우리들이 가능성을 내다보며 자신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 더 값진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 사이 過慾한 나머지 開發投資가 無分別하였고, 部處間, 分野間의 조정과 협의가 별로 없이 行해진

無計劃的인 投資로 슬한 試行錯誤를 겪기도 하였다. 혹은 자체의 技術開發 노력보다는 外來技術에 의존하는 풍토가 만연하기도 하였다. 만일 그 동안 투자가 효율적이었고, 科學의 振興과 技術의 開發能力을 육성하고, 이를 축적하는 일에 얼마간이라도 配慮를 하였더라면 오늘 겪고 있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의하여 겪게되는 難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얻은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跳躍을 위하여 값진 거름 역할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때에 우리는 經濟伸張을 早期達成하여 끝내 치열한 國際競爭社會에서 生存하고 나아가 先進國隊列에 끼어들고야 만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자칫 좌절하기 쉬운 차체에 우리들 科學技術人들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 용기를 돋구며 國民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자리가 國家元首의 至大한 관심에 의해서 마련되었고, 또 그 모임을 친히 主宰하였다는 것은 祖國의 近代化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는 것 같아 이 점 우리들 國內外科學技術人들은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이고 비로소 國家의 復興을 위하여 보다 더 큰 能力을 發現할 機會가 주어졌음에 그 隊列에 흔쾌히 참여하여야 한다.

첫번째 회의에 科學技術處는 앞으로 우리가 指向하는 바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전략을 보고하였다. 그외 民間技術研究所協會는 장차 國家에 대하여 그들이 기여할 결의와 방법, 그리고 문제점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 밖에 몇몇 產業體가 그들의 成功事例를 밝히기도 하였

다. 결국 우리는 이 회의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한 셈이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조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왕에 제시된 문제점 외에 필자가 항시 느껴오던 所見을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의 擴大會議에 참고가 되어 주길 바란다.

첫째, 우리는 投資調整機構를 활용함으로써 각종 낭비를 줄일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이 研究開發費로 所要된 투자액이 GNP 1.8%인데 비하여, 우리의 것은 1%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國家豫算의 많은 비중을 防衛에 配當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防衛의 부담이 거의 없는 日本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研究開發費의 부담이 막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그 投資가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自信있게 긍정할 형편이 못된다고 본다. 각 部處마다 投資의 방향과 순위가 다르고 研究事業이 중복되는등 非効率的投資가 없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자금과 인력의 낭비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科學技術振興法에 의거하여 國務總理가 長인 「綜合科學技術審議會」가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었음에도 그 機構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데에 그 같은 낭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審議會는 研究開發의 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 투자의 방법, 자금의 배분, 研究活動의 지원에 관하여 綜合적으로 審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部處間의 사업을 調整協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왕에 技術振興을 위하여 슬기를 모을 擴大會議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時點에서 上記 審議會와 같은 權威있는 調整機構가 活性化되어서 研究開發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人力, 資金, 精力 그리고 시간의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

둘째, 技術振興擴大會議가 「科學」을 斷切한 것이 안되기를 바란다. 이 會議의 목표가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구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때 그 능력은 基礎科學의 振作없이 伸長되지 아니

함으로 技術과 科學은 항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科學」技術處의 「科學」은 기술을 수식하는 「科學的」이라는 뜻이 아니고 「科學」과 「技術」의 두 가지 개념이 복합한 것이 옳다고 이해되므로 技術政策과 아울러 항상 科學育成政策도 꼭 같은 무게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科學은 그 產物의 生産이 長期的이고, 더 고도의 知識活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學이 그 활동의 中樞가 되는 것이 일반 通例로 되고 있다. 따라서 技術振興擴大會議가 비록 科學技術處에 의해서 主管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國家的 견지에서 보다 더 폭 넓게 大學의 참여를 촉구 혹은 誘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의 막대한 研究潛在力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科學과 技術의 振興政策이 大學을 떼어 놓고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점 특별히 유념되기 바란다.

셋째, 大學과 연구소간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最適의 방안이 案出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研究人力이 극히 貧弱하며 분야마다 研究者의 층이 얇다. 각각이 분산된 상태에서 좋은 研究課題가 導出될 수 없으며 연구결과 또한 충실해질 수 없다. 올해부터 「國家研究課題」를 정하고 이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의 効率性を 提高하기 위해서는 可用人力의 동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大學과 研究所間의 協力研究體制의 구축은 우리의 研究力量을 培增시키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하는데 最善의 方案이고 現與件에서 오직 그 길만이 祖國의 近代化時期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研究所와 大學이 서로 다른 行政府處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이유로 研究機關間의 교류와 협동이 저해받고 있다면 이는 前近代的 思考의 所致이고 이제 제 2의 跳躍을 다짐하는 마당에서 그러한 장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첫번째 技術振興擴大會議를 보고 그 제체에 筆者가 평소 느꼈던 所見을 몇가지 적어 보았다.